

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첨가물 국제 기준 논의 주도

- 세포배양식품 안전평가 지침 개발 공동의장국으로 신기술 논의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분과 회의(4.13.~4.17., 중국 충칭, 이하 CCFA56)에 참석해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국제화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64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계자 총 272명이 참석하였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하여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기구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 일반규격 제·개정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안전성 평가 우선순위 목록 제안 ▲세포배양식품 배지성분의 안전성 평가 지침 개발 ▲식품첨가물의 국제분류번호(INS)** 개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며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 1956년부터 활동 중인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일일섭취허용량(Available Daily Intake, ADI) 설정 등 수행

** 국제분류번호(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CODEX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예, 비타민C는 INS 300)

특히,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중국, 사우디와 공동 의장국으로 참여해 CODEX에서 처음 논의되는 세포배양식품의 배지성분 평가 지침 개발을 주도했으며, 관련 초안이 이번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스테비올배당체를 건강기능식품 ‘츄어블 (씹어먹을 수 있는)’ 형태 외 다양한 제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논의를 다음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암모니아(가스)의 가공보조제 용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JECFA에 요청해 평가 우선순위 목록에 등재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외에도 국내 사용기준과 산업 현황을 반영해 어묵(맛살 등)에 토마토색소 사용 기준을 신설하는 안 채택을 주도하여, 해당 안건은 올해 7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식품첨가물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신기술 식품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안전기준을 선도 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관련 자료는 CODE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 결과 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https://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home/en/>

** <https://www.foodsafetykorea.go.kr>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책임자	과 장	엄미옥 (043-719-2501)
		담당자	연구관	이순규 (043-719-2503)
협조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정지윤 (043-719-2421)
		담당자	연구관	안현주 (043-719-2415)
협조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협조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책임자	과 장	최윤주 (043-719-4351)
		담당자	연구관	김미라 (043-719-4352)

